다음주부터 초중고 학교서 수업한다

도교육청 지난달 29일 대책회의 통해 등교수업 결정
이석문 교육감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
확진자 발생할 경우엔 해당학교 원격수업 전환 조치

다음주(10월 5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체 등교수업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9일 대책 회의를 갖고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학교 부적응, 몸과 마음 건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등교 수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1주간(9월 23일~29일) 도내 평균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인 10.28명이고, 학생 확진자 수는 1.14명에 불과해 전체 등교 수업 조건이 갖춰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비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전면 등교를 허용한 정부 방침도 전체 등교 결정의 근거가 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대규모 학교도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현재 도내 전체 학교 중 87.3%인 274개교가 전체 등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오는 5일부터는 초등학교 1000명 및 중학교 8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도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 후 도교육청에 요청하면 전체 등교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분 등교수업을 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없다고 전했다.

단, 등교수업 중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지금처럼 코로나19에 대응해 원격수업(전체 또는 부분(학년·학급별))으로 전환된다.

이날 이석문 교육감은 "연말로 가는 시점에 확진자가 또 다시 많아지면 수능과 입시, 2학기 학사 일정 운영 등이 어려워진다"면서 "전체 등교를 이어가며 회복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등에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는 지난 8월 2일 도내에서 첫 2학기 개학을 한 한라중학교가 전체 등교수업을 하면서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의 시작을 알렸지만 같은 달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전면 등교수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도교육청은 학교 밀집도 기준을 한시 강화하는 등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해 수차례 학사운영 방안을 조정했다.

가장 최근 조정된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현재 도내 학교들은 오는 4일까지 고등학교는 전체 등교수업, 600명 이상 중학교는 밀집도 2/3 등교수업, 1000명 이상 초등학교는 4~6학년 밀집도 1/3 등교수업, 600~1000명 미만 초등학교는 4~6학년 밀집도 2/3 등교수업 등의 학사 운영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9월 한달 272명 코로나 감염

하루평균 9명꼴… 집단감염 여파 지속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두자릿수에서 한자릿수로 줄었지만 집단감염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9명(2876~2884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에는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확진자는 총 2884명으로 늘었으며 9월 한달 27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 경로를 보면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6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조사됐으며 1명은 타 지역 입도객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로 감염 경로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1명이 기존 집단감염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신규 확진자 1명이 '제주시 지인4'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됐다며 이 집단과 연결고리가 있는 선행 확진자를 상대로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녹지병원 75% 지분 주인은 '우리들리조트'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지분을 매입한 곳은 우리들리조트에서 투자하는 별도 합작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최근 녹지국제병원 지분 75%를 매입한 곳은 의료재단인 '우리들병원'이 아닌 우리들리조트다.

우리들병원과 우리들리조트는 같은 계열사였지만 내부사정으로 인해 관계사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은 지난 27일 문대림 JDC 이사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김회장 측은 녹지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들리조트는 갑상선 등 여성질환과 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계획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추억의 열매 '으름' 30일 오후 제주시 오라3동 한 주택 입구에 심어진 으름넝쿨에서 열매인 으름이 주렁주렁 열려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일 금요일 음 8월 25일 (2물)

기상정보

대체로 맑음

제주는 대체로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 내외, 낮 최고기온은 25~28℃로 전망된다.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10%	제 주	0%
10%	성 산	0%
0%	고 산	0%
10%	서귀포	0%

	해뜸 06:28 / 해짐 18:19	달뜸 00:36 / 달짐 15:26
물때	만조 07:09 / 20:13	간조 02:27 / 12:55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위험	보통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21/27℃
모레	맑음	20/29℃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한림민속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세화민속오일장	5, 10	중문향토오일장	3, 8
함덕오일장	1, 6	표선오일장	2, 7
고성오일장	4, 9	대정오일장	1, 6

탑동광장 다시 시민 품으로…

5일 오후 6시 전면 개방
코로나 여파 폐쇄 석달만
제주시 "상권침체 등 고려"
10월 한달간은 계도 활동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아 폐쇄됐던 탑동광장이 석 달 만에 개방한다.

제주시는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 1.38㎞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5일 오후 6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탑동광장은 지난 5월부터 관광객과 시민들의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랐고, 쓰레기 불법 투기도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6월 30일부터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산책로)에 대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탑동광장 1만2430㎡와 테마거리 1.38㎞ 구간에 약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m 높이의 쇠기둥을 박고, 그 위에 그물망을 씌워 노상술판 행위 등을 차단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최근 계절적 요인으로 야외에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확진자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인근 상권 침체 등을 고려해 탑동광장 시설 개방을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10월 한달간 계도 인력(총 18명)을 상시 배치해 주·야간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인 탑동광장을 되돌려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음주·취식행위를 자제해주시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탑동광장 폐쇄 기간 동안 취식 행위 등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63건이었다.

송은범기자